

李箱 소설의 성립 조건

——『날개』를 중심으로——

남 상 권

<차 례>

- | | |
|---------------------|-------------------|
| 1. 들어가는 말 | 3. 『날개』에 나타난 진입장에 |
| 2. 『날개』에 나타난 절망적 위악 | 4. 마무리 |

1. 들어가는 말

30년대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를 운위할 때, 이상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거론되어 왔다. 그것은 이색적으로 살다 간 한 작가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된 점도 있었고, 전후 한국 문단에 서구지향적인 신진 론자들이 기성의 작가와 변별성을 지닌 새로운 비평적 대안을 찾고자 했을 때, 이상은 동시대의 모던을 표방했던 문우들처럼 또 이들에게 상당한 매력을 주었다는 점도 해당 사유가 될 것이다.¹⁾

그간에 이상은 극단적 자기폐쇄와 역설의 시학을 통해, 태도의 희극이라는 문학적 주제를 극한에 이르게 까지 몰고 간 식민지 시대의 유일한 작가²⁾라는 평이 있었고, 작품 자체가 작자의 자의식의 세계에 설け된 모작 세계, 최재서가 리아리즘의 심화된 작품으로 열거한 날개는 조선에서 심리주의 작품으로서 대표작³⁾이라든가, 이상은 소위 자의식의 세계를 특이한 반어와 역설과 독백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종래의 기법에 비해 놀랄만한 혁신을 가져왔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날개]⁴⁾라는 교과서적인 견해 등은 그 시사하는

1) 김윤식은, 전후 기성문학에서 메테르가 아닌 것을 우상으로 간주 그것을 파괴하는 무기가 이상이고 거기에 임종국,이어령 등이 있다고 한다:한국근대작가론고(일지사,1974, p171-172)

2)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민음사,1973, p189)

3) 백 철: 조선신문학사조사현대편, (대한인쇄공사,1949, p317)

4) 김동욱, 김열규, 김태준: 고등학교 문학(동아출판사,1989.8, p420)

바가 사뭇 크다.

이러한 문학사의 일반 평가와 아울러 [날개]가 보여주는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사적으로 공창의 개념으로의 三三번지 十八가구, 식민지 시대의 나약한 지식인상의 세대론적 반영-로맨그룹 또는 사육되는 나, 전통과 신질서 간의 모순-가치관의 혼란 또는 매음하는 아내(連心이 또는 금홍) 등, 당시 사회의 다각적인 부조화를 설명하는 데에 [날개]는 독법의 난해성으로 말미암아 그 해석의 폭을 상당히 넓게 해야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작가의 생애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는 金海卿이라는 인물의 개인사와 아울러 그가 존재한 사회적 배경 까지 충분히 파악해 온 셈이다.

문학사에 상당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날개』는 여러모로 미완의 작품이다. 왜냐하면, 『날개』라는 작품의 성립에는 삶과 의식이 무너진 한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여러 조력자들에 의해서 가능했고, 그들의 퇴장은 곧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문학사의 한 지표가 사라졌음을 뜻한다. 이런 류의 소설이 오랜 관심을 끌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시 이러한 문제아를 기다린다는 암묵적인 기대치가 저변에 있다는 뜻인데, 그러한 기대가 결코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날개』는 이상이 실패한 다수의 여금문학 또는 정사보고문학 가운데 하나이다.⁵⁾ 또한 언술의 난해함을 무기로 주변인에 대한 위악적인 폭로로, 그들의 무지에 학대를 가한 것이다. 그것은 허구이므로 정당하다는 가설은 이상에게는 무의미하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전력하다 말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상은 가능성 많은 청년기에 요절했다. 지금까지 남겨진 작품이 이상의 전부라는 현실적 증거보다 인간적으로 예측 가능한 다양한 재능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또 좀 더 오래 살면서 남겼어야 할 『날개』 이후의 걸작에 대한 기대치를 가정할 수도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불우했던 이상의 청년기가 문학적 성과 以上으로 조명되어 문학사를 도리어 빈곤하게 보이게 한 점도 이와 같은 기대치에 말미암은 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이상이라는 막완성의 대기를 현학적으로 수식해 온 논자들의 깊은 애정 때문에 이상 이후의 가능성을 문학사에서 별반 발견하지 못했던 까닭도 있었으리라 본다. 본고의 논의는 이러한 이상의 소설을 부정하거나 평하는 데 목표를 두지 않는다. 다만 이상의 작품이 무조건 우수하다는 선입견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상의 『날개』를 중심으로 한 본 논의는, 그것을 형상화한 근원을 살펴봄으로써 이상연구의 업적이 다소 소모적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의 일 계기로 삼고자

5) 고은 : 『錦紅에 로스』 「李箱評傳」(민음사1974) p223-235 <참조>

하는데 있다.

2. 『날개』에 나타난 절망적 위악

『날개』의 배경은 일제 강점기인 서울이다. 전편의 암시적인 프롤로그와 본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물론 프롤로그가 없어도 그 의미는 성립된다. 특히 작품의 예술적 구성체에 해당하는 플롯이 심리적 발전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술되는 점에서 매우 단순하다. 흔히 의식의 흐름을 따라 반영되는 시간 개념이 미세한 기억의 편린 속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바, 서술 시간과 허구의 시간 사이의 괴리 현상은 『날개』라는 단형서사체에서는 무시해도 좋을 듯 싶다. 특히 시간 개념은 미세한 단위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하지만, 이러한 명확한 단위 분석에 합당한-시제상 과거와 현재가 번번하게 겹쳐지는 대서사체- 다양한 플롯을 구사하는 단편이나 장편소설에 대한 입론으로 발전시키기 보다 타당할 것이다. 우선 『날개』의 줄거리를 살펴보자.

“나는 병약에 하고 나태한 자로 33번지 18가구의 일원으로 아내에 얹혀사는 존재다. 나는 는 해가 들지 않는 방에서 낮잠을 자거나 몽상에 잠기는 나날을 보낸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곳에 산 지금까지 아내와 동침해 본적이 없는 나는 그저 사육당하는 처지다. 나는 이따금 아내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서 아내의 방을 관찰한다.(이 방은 바깥세계를 향한 통로다) 그곳은 내방과 다르게 화려하다. 나는 아내가 없는 방 안에서 돋보기로 지리가미(휴지)를 태우는 장난을 하고 거울을 가지고 놀기도 하며, 아내의 화장품을 통해 아내의 채취를 확인하려 한다. 아내에게는 내객(손님)이 많다. 그들은 아내에게 돈을 지불한다. 아내는 그 돈을 내게도 지불한다.(아내는 이런 굴욕을 나에게 전가시킨다) 아내에게 내객이 있을 때는 아내 방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아내의 직업에 관해서 잘 모르지만 아내는 직업적으로 외출도 한다.(아내의 외출은 나에게 바깥세계를 향한 출구의 개방을 뜻한다) 아내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서 나는 외출을 시도한다. 나는 외출후 돌아오지만 내 방에 들어가는 데 장애를 받는다. 아내에게 내객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금기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외출에서 이런 금기를 깨자 나는 아내에게 받은 오원을 지불한다. 나는 아내와 동침한다. 두 번째도 그렇다.(나는 이런 굴욕감을 아내에게 다시 전가하는 쾌감을 느낀다) 세 번째 외출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만다. 비에 젖은 나는 추위 때문에 일찍 귀가했기 때문이다. 아내는 내게 감기약이라며 아달린을 한달간 복용시킨다. 나는 잠만 잤다. 내가 아달린을 발견했을 때 나는 산으로 외출을 한다. 나는 거기서 아달린 여섯알을 먹고 일주야를 잔다. 아침에 귀가했을 때 절대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된다. 나는 아내에게 도리어 얻어 맞는다.나는 남은 몇 원 몇 십전을 아내의 방에 밀어 넣고 집을 뛰쳐나온다. 어디론가 쏘아다녔는지 모른다. 몇시간 후, 나는 미스코시 옥상(지금쯤 남대문 옆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나를 깨닫는다. 나는 나의 존재를 반성한다.나는 불현 듯 거드름이 가스럽다. ‘날개여 다시 돌아라/날자.날자.날자.한번만 더 날자꾸나’라고 나는 외치고 싶다.⁶⁾

이런 일련의 행위 반복을 통해 나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확인는 과정을 『날개』의 주제라 말하기도 한다.⁷⁾ 다분히 심경소설이며 고백육을 통한 자의식의 발전 과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온 셈이다.

반면에 외출에서 귀가의 과정을 역으로 추적하다 보면, ‘나’의 자학적 순응성이 엿보이는 면이 있다. 이러한 순응적 회귀가 장애를 받음으로서 마침내 자의적인 외출로 발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스스로에 의해 조성된 환경, 즉 자제적 밀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의 일면은 아내의 금기⁸⁾에 대한 제제로 말미암아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아내-내객’ 또는 ‘나의 방-아내의 방-바깥’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 보면, 나의 격리(밀실 속에서의 존재)는 거꾸로 바깥에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차게 한다. 반면에 바깥에서, 즉 외출에서 귀로는 번번히 차단되고 ‘아내-내객’ 또는 ‘바깥(내객의 세계)-아내의 방’이라는 장애를 만난다. ‘나’는 내 방의 진입을 위해 아내와 타협을 하지만 번번히 보지 말 것을 보게 된다. 금기야 아달던 까지 먹게 되고 일종의 분노가 동반된 자각을 통한 네 번째 ‘일주야’에 이르는 외출이 감행된다. 아내와의 불화의 고리를 찾을 수 있었던 이 외출에서 ‘나의 오해’라는 새로운 타협점을 찾지만 귀로에서 절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적반하장격의 봉변을 당하고 네 번째 외출의 동기 상태로 되돌아서는, 열매감으로 도저히 안주할 수 없게 됨으로써 다섯 번째의 외출이 감행된다. 이러한 심경의 발전 과정을 폐쇄공간에서 개방공간으로 진입하려는 시도로 보아 온 기존 관점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나’는 바깥을 지향하지만 그것은 일상적인 자유의지이다. 나태로움 역시 자유의지로 보여진다. 병약함에 따른 나태는 아내와의 타협의 산물이다. 그것은 일종의 규칙, 즉 금기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이다. 거기에는 아내의 방과 나의 방 사이의 경계 지점, 아내와 나의 주종관계에서 비롯된 비밀스러운 영역 내지 절대 권위에 대한 침범 유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이러

6) 『날개』, 「이상문학전집2」(문학사상사, 1991)

7) 김종하는 “<人間性 回復> 또는 <非本質의 自我가 本質의 自我를 찾아 자아의 통일을 이루는 의지>를 주제”로 한다고 보고 있다. 거기에서 “전도된 질서, 폐쇄된 의식, 잃어버렸던 본래의 인간성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에서 탈출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외출패턴>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았다. 『李箱의 『날개』』, 「한국현대소설 작품론」(문장, 1987) p 245

8) 전통서사체(신화, 전설, 민담)에서는 금기 보티브가 흔히 존재한다. 그것의 위반은 제제가 따르고 충족되었을 때 주술적 억압에서 해방된다. 날개에서 이러한 면을 고려해 볼직하다. 즉, 아내의 억압 양태가 금기에 대한 수용 여부에 관한 반응이며 ‘나’는 금기에 대한 반복적 위반을 통해 이야기를 성립시킨다.

한 것을 지키려고 애쓴다. 하지만 계속 바깥세계를 향한 자유의지는 아내가 설정한 금기를 위반하게 되고, 마침내 제재를 받게 된다. 그 제재의 주체가 ‘나’를 미스코시 욕상에 도달하게 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다른 작품을 살펴보자.

1. 밤이면 나는 幽靈과 같이 興奮하여 거리를 뚫었다. 나는 目標을 갖지 않았다. 空腹만이 나를 指揮할 수 있었다. 性格의 破片- 그런 것을 나는 꿈에도 돌아보려 않는다. 空虛에서 空虛로 말과 같이 나는 狂奔하였다. 술이 始作되었다. 술은 내 몸속에서 香水같이 빛났다.

바른팔이 왼팔을, 왼팔이 바른팔을 苛酷하게 매질했다. 날개가 부러지고 파랗게 멍들은 痕跡이 남았다.(밀줄 필자)⁹⁾

윗글은 『恐怖의 記錄』이란 수필인데, 이상 자신이 『날개』에서 드러난 아내와의 관계가 어느정도 겹쳐진다. 『날개』는 아내와의 불화로 ‘미스코시’ 욕상까지의 가솔한 상태를 보여주지만, 위의 1은 그 후일담으로 내용은 그 반대에 가깝다. “나를 배반한 계집”을 “삼년동안 금직이도 사랑하였던 끝장”에 대한 이야기다. 아내의 가솔후 “溫突房 한 間과 ‘二疊間’”이 굳게 못질하여 놓고 ‘나’는 밤이면 유령과 같이 거리를 배회한다. 여기의 ‘二疊間’이란 바로 『날개』에 나타난 나와 아내의 격리된 ‘장지’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나’에게 있던 ‘날개가 부러지고 파랗게 멍들은 痕跡’만 남아 있음은 무슨 뜻인가를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아내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설 『날개』의 성립은 李箱의 詩『紙碑』에서 보여준 ‘부축할 수 없는 절름발이’ 상태의 부부관계에서 시작된다. 『날개』에서 ‘나’의 상상의 ‘날개’는 아내의 학대에 의해 돌아난 것이다. 그런데 1에서 아내의 부재는 나의 ‘날개’를 퇴화시킨 것이다. 그것은 완전 자유를 꿈꾸지 않았음을 뜻하고 아내와의 관계의 지속성을 바라고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아내가 1에서처럼 넋달만에 다시 나타났지만 이번엔 완전히 결별하려고 이사를 준비한다. 1은 그간의 상실감에서 오는 증오에서 비롯된다. 그 사이에 권순옥과 관련된 또다른 폭로물인 『幻視記』가 자리잡고, 변동림과 결혼으로 인한 일련의 작품이 나타난다. 또 『날개』에서 나의 ‘언어맞춤’이 『逢別記』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이처럼 이상 문학은 시와 소설, 수필에 이르기 까지 하나의 연속선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이상의 소설은 독법상 매우 난감한 문제와 만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의 소설의 주조는 일인칭 소설인 바, 단순히 작가적 시점에 의한 허구라는 측면 보다 자전적 경향이 강한 심리적이고 수필과의 경계가 극히 애매한 신변소설(사소설)적인 성

9) 『恐怖의 記錄』, 『李箱문학전집2』(문학사상사, 1991) p201

격을 드러낸 점이라 하겠다. 이는 곧 작가와 등장 인물을 동일화 함으로써, 허구라는 측면보다 작가 주변사에 논의의 초점을 고정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소설이란 결국, 작가의 경험세계와 무관할 수 없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 창조된 세계는 허구라는 기교적 장치로 새롭게 걸러낸 세계임을 감안할 때, 정통 소설론을 통한 시각으로 이상의 소설을 보면 다소 당혹스운 면이 있다.

2. 혼자서 나쁜짓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어두컴컴한 房 안에 표본과 같이 혼자 端坐하여 蒼白한 얼굴로 나는 후회를 기다리고 있다(밀줄 필자)¹⁰⁾

3. 혼자서 못된짓 하고 싶다. 난 이제 끝내 살아 나지 못할 것이다. 필경 살아나지 못할 테지.

허나 언제나 箱과 꼬옥 같은 모양을 한, 바로 箱 자신이 아니면 아니된다. 그럼자 보다도 불투명한 한 사나이가 그의 앞을 막아서면서 어정버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빛바랜 세피어색 그림자 앞에선 고개를 들지 못한다.

어차피 살아날 수 없는 것이라면, 혼자서 한껏 잔인한 짓을 해보고 싶구나.

그래 상대방을 죽도록 기쁘게 해주고 싶다. 그런 상대는 여자——역시 여자라야 한다.그래 여자라야 할지도 모르지.(밀줄 필자)¹¹⁾

4. 나는 또 여인과의 생활을 설계하오. 연애기법마저 서먹서먹해진, 지성의 극치를 흘깃 좀 들여다 본 일이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정신분열자 말이오. 이런 여인의 반—그것은 온갖것의 반이오—만을 영수하는 생활을 설계한다 말이오. 그런 생활 속에 한 발만 들여 놓고 흡사 두 개의 태양처럼 마주 쳐다보면서 깔깔거리는 것이오. (밀줄 필자)¹²⁾

위의 2는 1937년 4월 25일에서 5월 15일 까지『매일신보』에 발표한 『공포의 기록』이다. 이 작품은 1949년 3월 『白楊堂刊』 김기림의 『李箱選集』과 10년 뒤인 1959년 『고대 문학회』에서 임종국이 펴낸 『李箱全集』에는 수필로 분류되어 있고, 1991년 『문학사상사』에서 간행된 김윤식의 『李箱문학전집』은 소설로 분류되어 있다. 또 3의 경우, 1의 “서장”에 이어지는 “不幸한 繼承”에 연속되는 제목이다. 3의 『不幸한 繼承』은 일문으로 된 것인데, 『문학사상』(1976.7)에서 발굴 유정에 의해 번역 소개된 작품이다. 이 작품을 일방적으로 이상의 것이라고 단정하는데는 다소간의 무리가 따르는 점도 있지만, 김윤식의 『李箱문학전집』에서는 소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 또한 논자에 따라 수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만큼 이상에 있어서 소설과 수필의 경계가 모호하다.¹³⁾ 4는 이미 잘 알려진 『날

10) 이상 : 『恐怖의 記錄』, 『이상문학전집2』(문학사상사, 1991) p203

11) 『不幸한 繼承』, 앞책. p208-9

12) 『날개』, 앞책. p318

개』의 암시적인 서두인데, 같은 계열의 『지주회시』나 『逢別記』에 연속되거나 내용이 상당히 중복된다. 이상의 창작 행위가 하나의 원심력에 의하여 자아를 일관되게 드러내고자 함에서 비롯된다. 앞의 2와 3에 연속되는 ‘혼자서 나쁜짓’이나 혼자서 “殘忍한 짓”을 꿈꾸는 것은 결국 죽음을 앞둔, 일종의 재기 불능의 상태로, ‘나’는 임포텐츠와 같은 상태에서 ‘나’를 방기한 여성 모두에 대한 분노 내지 학대로 나아간다. 또 4에서 처럼 ‘여인과 의 생활을 설계하’고 ‘나’ 또는 이상은 ‘깰깰거’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설계하는 행위는 곧 메조키즘적 본능에서 비롯되고, 그 본능을 다시 문학이라는 장치로 교묘히 환기시키는 행위이다. 그것의 의미구현은 이상이라는 인물 내면 밖에 있는 실존 인물에 대한 가혹한 언어 폭력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3에서처럼 죽음이란 그림자를 드리운 상황에서, 살아 남을 사람에 대한 애증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이상의 전작에 죽음에 관한 이미지가 빈번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만큼 죽음이 두려웠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삶에 대한 애착과 체념이 교차하는 가운데서 이상 문학은 성립된다. 이상 문학은 이런 의미로 보면 자기 위안을 위한 악마적 카타르시스로서 연쇄적으로 발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장면은 더욱 구체적이다.

5. 키가 작달막하고, 눈앞이 검고, 털이 군데군데 빠지고 흙투성이의 암탉 한 마리가 내 눈에 띄었다. 새침한 中 에도 새침한 품이 뚫고추 같이 뚫렸다. 그렇게 보니 그럴성도 싶은게 모이를 먹다가는 때때로 홀깃홀깃 狂奔한 계집같이 결눈질을 곧잘 한다. 금방 달려들어 모래라도 한줌 꺼없이 주었으면 하는 공연한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허리를 굽히기가 싫다. 속모르는 수탉은 수선도 파이는구나.<밀줄 필자>¹⁴⁾

6. 그러나 이내 아직 기를 펴지 못한 靑春이 藥堂관을 붙들고 늘어져서는 날 살리라고 보채는 것은 어쩔 수 없다. 旅館 寒燈 아래 밤이면 나는 늘 억울해 했다. 사흘을 못 참고 기어 나는 旅館主人 영감을 앞장 세워 밤에 杖鼓소리 나는 집으로 찾아갔다. 게서 만남 것이 금중이다.

『몇살인구?』

體大가 비록 뚫고추만 하나 깡그라진 계집이 제법 맛이 땀다. 열여섯살? 많아야 열아홉살이지 하고 있자니까<밀줄 필자>¹⁵⁾

앞의 5는 『공포의 기록』에서 암수가 분리된 닭장을 묘사한 대목이다. 이 삽화는 상황부터가 상당히 조작적인데, 더러운 한 마리의 암탉은 6의 『봉별기』에서 ‘뚫고추 만한 깡

12) 그 예로, 위의 자료집에서는 임중국은 『지행이의 轢死』를 수필로, 또 『황소와 도깨비』, 『金裕貞』을 김기림과 임중국은 수필, 김윤식은 앞의 셋을 소설로 분류해 놓고 있다.
14) 『恐怖의 記錄』, 앞책. p194

15) 『逢別記』, 앞책. p348

그라진 계집'으로 묘사된 금홍과 겹쳐진다. 거기에 수탉은 6에서는 '나'인 李箱일 수도 있다. 나는 5의 암탉을 통해서, '속모르는 수탉'인 '나'를 본 것이다. '나'는 '음분한 계집'같은 암탉을 향해 모래를 끼얹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것은 『날개』에서 장지방에 가려진 나의 방과 아내의 방을 연상시키는 닭장의 구조 때문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금홍은 상당히 악의적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날개]에 한 번 기술한 아내의 이름은 連心이다. 그녀는 금홍이라는 잘 알려진 가명을 가진 李箱의 애인이었다. 1933년 각혈을 한 이상은 총독부 기수직을 그만두고 그해 삼월 화가 구본웅과 함께 백천온천에 요양을 갔다. 이 온천에서 금홍을 알게 되었다. 이상의 우인들의 말을 따르면 연심이란 여자는 까무잡잡하고 야무진 얼굴을 가진 18세 가량의 기생이었다고 한다. 이상은 백천에서 몇 개월을 지내다가 금홍(연심)과 함께 서울로 돌아와서 [제비]란 다방을 차리고 그녀를 마담으로 하여 동거생활을 했다. 이무렵 정지용을 알게 되고 또 구인회 회원들과 교제를 한다. 그러나 다방은 운영마속으로 곧 문을 닫고 금홍은 잦은 가출을 한다. 금홍은 이상과의 생활을 삼년 가까이 실질적인 첫번째 아내이기도 하다. 물론 금홍과 헤어진 후, 권순옥이라는 여급과 교제가 있었고 친구 구본웅 서모의 동생인 변동림과 정식 결혼도 하게 되지만 그역시 원만한 생활을 이루지 못한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거기에는 이상식의 순결주의가 있다. 이상은 봉건적이라 지칭할 수 있는 전통적 정조관에 집착한 흔적이 그의 전작품 도처에 나타나곤 한다. 불행히도 이러한 여성관이 현실에서 정반대로 실현된다. 이상의 생애를 통해 정상적인 정조관에 따른 생활을 추구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변동림과의 결혼 생활은 『실화』, 『동해』, 『중생기』에서 나타난 극한의 분열상태 내지 자기기만으로 전도될 정도의 실패였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지병인 폐병이 치유될 수 없는 지경으로 까지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는 뜻이며, 심지어 같은 폐병환자인 김유정에게 동반자살을 제안하기도 한다. 금홍을 모델로 한 소설이 [지주회시], [날개], [봉별기]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이상의 불우한 성장과정에 이은 폐병, 또 총독부 기수직 사직은 무기력증을 유발하기에 일정한 조건을 제공한 듯 하다. 당시 폐병이라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따라서 연심(금홍)과의 만남은 자포자기적 상황에서 나온 타협의 산물인 듯하다. [날개]나 그 계열의 작품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생활의 투영으로 볼 수 있다.

7. 이렇게까지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한 까닭은 이 33번지 18가구 가운데서도 내

아내가 내 아내의 명함처럼 제일 작고 제일 이름다운 것을 안 까닭이다. 18가구에 각기 별려 들은 송내가 이송이 꽃들 가운데서도 내 아내를 특히 아름다운 한 떨기 꽃으로 이 함석지붕 밑 별 안 드는 지역에서 어디까지든지 찬란하였다. 따라서 그런 한 떨기 꽃을 지키고- 아니 그 꽃에 매어달려 사는 나라는 존재가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거북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던 것도 물론이다. <날개>¹⁶⁾

남편으로서 경제력의 결여가 반드시 위와 같은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드문 현상이다. 기생이라는 아내의 특수한 생활력에 기대어 생활하는 ‘나’의 경우는 하구라는 장치를 통해 경험적 사실을 폭로하는 형식에서 문제적 인물로 나타날 뿐이다. 이 폭로가 역설적이고 난해한 관계로 설정됨으로서 등장 인물들의 이상 심리를 고도화 하는데 다소간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여질 다름이다. 결국 보편적 남편 관계에서 생활력의 있어서의 역전 현상, 즉 가족관계에서 서열의 역전, 나아가 일방적으로 통제 받고 사육당하는 위치로 전락하게 된 ‘나’는 자의식의 발전을 통해 독자에게 심리적 정보를 전달한다. 거기에는 김기림의 지적처럼, 이상이 ‘시 대신에 소설을 쓴 것은 속된 독자층 아니 너무나 상식적인 문단 그것과의 타협’¹⁷⁾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상의 시를 異端視 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소설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독자의 예술적 취향 이전에 비상식적인 사생활 엿보기의 또다른 악취미이다.

3. 『날개』에 나타난 진입장애

[날개]는 작품 구성상 33번지 18가구의 일원인 ‘나와 아내’ ‘나의 방과 아내의 방’을 중심으로 ‘나’의 외출이 동기화 되면서 이야기는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물론 33번지나 18이라는 숫자가 복수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중심 인물인 ‘나와 아내’ 사이에 ‘나’만이 가진 밀폐된 공간이 있고 이곳에서 아내에 의해서 ‘나’는 사육이 되고 있다. 나는 이것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학적 상태에서 바깥 세계에 대한 환기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즉, 아내의 방은 외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아내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 통로는 거꾸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이상의 [날개]에서 외출 모티브는 ‘나’에 대한 일신상의 변화를 촉발하는 장치로 나타

16) [날개] 앞책 p240

17) 金起林:『李箱選集』(白陽堂, 1949) p6

난다. 작품상 외출은 다섯 번 이루어지는데, 외출에서 귀로는 번번히 차단 당하는 일정한 장애가 나타난다. 이러한 반복된 장애 현상이 '사건의 심각성을 점차 두드러지게 한다.

이에 따른 외출에서의 귀가는 네 번 이루어 지는데, 이 네 번 제 귀가의 실패가 다섯 번 제 외출을 시도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나'는 아내의 직업에 대해서 모른다는 일반 정보와 달리 독자는 작품 내용상 '그의 아내는 어떠하다'하는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내포작가(나레이터)가 곧 실제 작가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 여러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독자는 화자의 전술과 심경변화의 추의를 낱설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내적 독백이란 장치는 이러한 면에서 효과적이다. 나의 방(자폐의 공간)-아내의 방(통로)-바깥(외출)에 나타난 변화의 추의를 간추리면,

외출 1: 아내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나는 밤 외출한다. 은화를 지폐로 바꾸니 5원이다. 나는 돈 쓰는 방법을 모른다. 거리를 방황하니 피곤하다.

귀가 1(1차 장애): 아내의 방에 낯선 남자가 있다. 아내의 눈초리를 의식 한다. 아내의 방을 불안하게 통과한다. 내객을 보낸 아내는 노기를 띠고 있다. 아내에 대한 사회의 뜻으로 5원을 지불한다. 아내의 방에서 처음 동침한다.

외출 2: 기운을 얻었다. 저금통을 변소에 넣은 것을 후회한다. 바지 포켓에 2원이 있다. 외출을 한다. 돈을 주고 아내의 방에서 자는 것이 일종의 쾌감이다. 자정을 넘겨야 하는데 시간이 더디 간다.

귀가 2(2차 장애): 자정을 넘기고 돌아 오는데 대문에서 아내와 내객이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 나는 모른체 하고 내상으로 들어간다. 아내에게 2원을 지불하고 아내의 방에서 잔다

외출 3: 아내의 대접이 전보다 낫다. 오히려 불안하다. 외출을 생각한다. 돈이 없다. 아내가 눈치채고 돈을 준다. 지폐다. 아내는 어제보다 늦게 오라고 한다. 비를 맞아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

귀가 3(3차 장애): 아내에게 내객이 있다. 아내가 보면 좀 덜 좋아할 것을 그만 보았다. 얼떨결에 아내의 방을 통과해 버린다. 감기가 들었다. 아내는 하얀 정제약을 준다. 아스피린인가 싶다. 감기는 낫았으나 한달 가까이 복용하면서 수면에 빠진다.

외출 4: 아내의 방에서 최면제 아달린을 발견한다. 하마터면 까무라칠뻔 한다. 아달린 병을 들고 밖으로 나온다. 산을 찾아 올라간다. 벤치에 앉아 아스피린과 아달린에 대해 연구한다. 아달린 여섯알을 한꺼번에 먹는다. 일주야를 잔다. 아내는 밤낮으로 나를 재우고 무슨짓 했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내를 의심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오해에 대해 사과를 결심한다.

귀가 4(4차 장애): 아내의 방문을 연 순간 나는 내 눈으로 절대로 보아서는 안될 것을 딱 보아 버리고 만다. 대무새를 풀어치킨 아내가 내 떡살을 잡고 구타를 한다. 밥새워 가며 도적질 계집질 했느냐며 발악한다. 뒤이어 남자가 아내의 방에서 나오며 아내를 안고 들어가 버린다.

외출 5) 나는 아내의 문지방에 남은 몇원 몇십전을 아내의 방 미닫이에 넣고 줄달음 친다. 경성역 -미스프시 옥상을 배회한다. 내 자라 온 스물 여섯해를 회고 한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임을 깨닫는다.

以上에서 보듯이 <외출 1-4>는 공인된 통로를 이용한다. 그러나 <귀가 1-4>는 일정한 장애를 만난다. 즉,나의 자폐적 공간에 진입하려면 아내와 내객이 존재하는 통로를 이용해야만 한다. 이는 곧 금기에 해당한다. 아내는 '나'에게 내객이 있는 동안 아내의 방에 근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장지로 가린 내 방에 있을 때 조차 이러한 금기는 지켜야 했다. 그러므로 아내의 방은 '나'의 자의식의 출구를 여는 핵심적인 통로인 셈이다. '나'는 외출을 통해서 전도된 질서의 회복이나 폐쇄된 방으로 부터의 탈출은 과거와의 결별이요, 새로운 자아의 정립으로 해석¹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아내의 감금하 다시피한 생활에 불평 보다 '나'는 쾌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외출을 감행한 점¹⁹⁾으로 미루어 보아, 물론 역설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지만, '나'는 안전한 귀가를 위해 금기를 타협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장애는 번번이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과정에서 처럼, '내'가 내객과 아내가 존재하는 방을 숙명적으로 통과해야만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결국 <외출 5>는 이러한 통과 금지 위반에 대한 아내의 제재라는 위기로 부터 탈출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외출 5>에 이르기 까지 '나'는 사육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고 아내가 정한 규칙에 순응하고자 한다. 즉 아내의 매음에 개의치 않고 기생하고자 하는 측면이 외출-귀가<1-4> 모티브에서 강화됨을 볼 수 있다. 다른 작품에도 이러한 사실을 보장하는 대목이 있다.

6.禹라는 불란서 유학생의 遊冶郎을 나는 금홍이에게 권하였다. 금홍이는 내 말대로 우씨와 더불어 [독탕]에 들어갔다. 이 독탕이라는 것은 좀 음란한 설비였다.나는 이 음란한 설비 공간에 나란히 벗어놓는 우씨와 금홍이의 신발을 보고 언짢아 하지 않았다.

나는 또 내 결방에 와 묵고 있는 C라는 변호사에게 금홍이를 권하였다. C는 내 열성에 감동되어 하는수 없이 금홍이 방을 범하였다.그러나 사랑하는 금홍이는 늘 내 곁에 있었다. 그리고 우, C 등등에게서 받은 심원 지폐를 여러장 꺼내 놓고 어리광 섞어 내게 자랑도 하는 것이었다.²⁰⁾

18) 김중하: 이상의 [날개](-[날개]의 패턴 분석), 한국현대소설작품론(문장,1987,p244)

19) "내객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나 아내가 내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나 일종의 쾌감-.....쾌감,쾌감 하고 나는 뜻밖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 흥미를 느꼈다.아내는 물론 나를 감금하여 두다시피 하였다.내게 불평이 있을리 없다. 그런 중에도 나는 쾌감이라는 것의 유무를 체험하고 싶었다." <날개>,앞책 p247.

20) 『逢別記』, 앞책. p349-350

7. 또 이십원이다.십원은 술값 십원은팁. 그래도마유미가용하지 않거든양돼지라고 그래주고 그래도그만이면이십원은그냥뜨는것이다부탁이다. 아내야또한번 전무귀에 대대이고 양돼지 그래라. 걷어차거든 두말말고층계에서굴러내려라²¹⁾

6은 『逢別記』에서 이상과 금홍의 첫 만남에서부터 ‘절름발이’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禹와 C에게 금홍을 권하는 ‘나’나 매음에서 번돈을 놓고 ‘나’에게 ‘어리광을’을 부리는 금홍이란 여인은 비상식적인 인물이다. 이 역시 『날개』에서 보여주듯, “도시적 삶은 ‘매음’의 악마적 이미지로” 드러난다.²²⁾ 7은 제목부터 시 『鳥瞰圖』나 소설 『童骸』와 마찬가지로 글자의 조작을 통한 이미지의 굴절을 꾀한 작품이다. 『지주회시』에서 A책인점 상무에게 양돼지라 불렀다가 아내가 맞아 계단을 굴러떨어진데서 이야기가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하지만 아내의 부상으로 받은 위자료로 술값과 팁값을 지불하려 한 나의 행위는 다분히 위험천만한 인물로 비춰진다. ‘거미가 돼지를 만나’는 상황에서 나는 양돼지에게 맞아 층계에 굴러떨어진 거미로 상징되는 아내로 말미암아 유희를 즐기겠다는 내용 역시 악의적인데가 있다. 이작품 역시 금홍시리즈의 한 축을 이룬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는 다시 확인해진다.

8.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금홍이의 오락을 돕기 위하여 가끔 P군(박태원:필자 주)집에 가 잤다. P군이 나를 불쌍하다고 그랬던가 싶이 지금 기억난다.

나는 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즉 남의 아내라는 것은 정조를 지켜야 하느니라!

금홍이는 나를 나태한 생활에서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우정 간음하였다고 나는 호의로 해석하고 싶다. 그러나 세상에 흔히 있는 아내다운 예의를 지키는 체해 본 것은 금홍이로서 말하자면 천리의 일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실없는 정조를 간관삼자니까 자연 나는 외출이 잦았고 금홍이 사업에 편의를 돕기위하여 내방까지도 개방하여 주었다.그러는 중에도 세월은 흐르는 법이다.

하루 나는 제목 없이 금홍이에게서 몹시 얻어맞았다.나는 아파서 울고 나가서 사흘을 돌아오지 못했다.너무도 금홍이가 무서웠다.

나흘만에 와 보니까 금홍이는 매물은 버선을 옷목에다 벗어 놓고 나가 버린 뒤였다.<밀줄 필자>²³⁾

9. 그러나 이곳 관철동(大元卷藩) 삼십삼번지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산다고,오직 말로만 들었을 뿐으로, 최군도 자기생활을 가질 턱 없이, 그래, 다만 빈말이라도 놀러오란 말 한마디 없었고, 나도 그의 어지러운 생활을 일부러 보고 싶지도 않아, 이래저래 한번도 찾아 본 일이 없으므로, 한집안에 열여덟 가구나 살고 있다는

21) 『지주회시』,앞책, p 314

22) 김준오,『한국근대문학에서의 전통과 근대』,『韓國近代文學의 爭點 2』(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2) p18

23) 앞책,p351

-----<중략>

설혹 내가 최군을, 아우의 말마따나, 그 '천하의 몸쓸넌'에게서 떼어 놓는 것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최군의 가정에 행복과 평화를 가져올 것은 아니겠고, 뿐만 아니라, 새로이 두 남녀가 받을 그 상처는 또 어떻게 마땅할 것이란 말이고.

더구나 현재 그들은 그렇게도 행복되어 보이고, 최군은 바로 자기의 입을 가져,

"나는 정말 사랑하우"

하고 그러한 말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24)

윗글 8을 보면, 작가는 작품을 통한 실험 정신을 투사하는 기법의 발전이나 전위 의식의 일면을 찾기에 앞서, 절제되지 않는 사생활의 전면을 허구라는 장치를 통해 교묘히 폭로한다는 점이다. 7은 『恐怖의 記錄』과 마찬가지로 금홍과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정리한 후일담이다. 그만큼 실제 있었던 사실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외부의 시선에서 파악한 작품이 9의 『報告』(여성, 1936.9)가 된다. 나는 감기와 몸살을 앓고 있는 최군을 방문하는데, 최군이 바로 이상을 뜻한다. 이 작품은 이상의 『날개』(조광, 1936.9)와 같은 시기에 각각 발표되었다. 박태원은 이상과 같은 「九人會」 동인으로 교유가 깊었다. 이들은 상호간에 작품속에 등장시켜 이들 개인사의 편린을 실재적으로 드러내곤 하는데, 이들은 작품속에서 타인에 대한 관찰자로 내면과 외면을 드러내기를 한다. 8의 '나'는 9에서 최군으로 나타난 이상이듯이 8의 P는 9의 '나'로 지칭되는 박태원이다.

이상은 금홍과의 삶이 타인의 자각처럼 스스로는 불행해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것은 일종의 작학적 상태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었기에 이런 비밀상성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긴장된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또 이러한 삶이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적이라면, 이러한 상태의 붕괴(금홍의 가출, 또는 여자에 대한 실망)으로 말미암아 문학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것을 뒤집어 놓던 사실적인 폭로를 하던 간에 이상은 문학적인 자기정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거기에 '혼자서의 못된(나쁜) 짓'에 귀결되는 [날개]의 프롤로그에서 처럼, '박재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나 '나는 또 연인과 생활을 설계하오. 연애마저 서먹서먹해진 지성의 극치'라든가 '굿바이 그대는 이따금 그대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탐식하는 아이러니', 처럼 또 '위트와 패러독스'를 통해 의도된 폭로를 일삼겠다는 뜻이 된다. 그것은 건강에 대한 장애, 관계된 여성으로부터의 장애 등, 스스로 도달하지 못한 理想에 대한 좌절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즐겨 사용하는警句는 어떤 심각성을 말하기 보다 말장난에 가깝다. 그만큼 현실적 심각성을 심각하

24) 박태원:『報告』, 『박태원단편집』(학예사, 1939) p210

게 표현하기엔 만신창이가 된 심신으로선 감당하기에 힘겹고 피로하였기에 그렇다. 즉, 소설에 삽입된 다다이즘적 시편과 같은 서시적 형태를 보여주는 하되, 본문에 대해 난해한 경위로 의미확대를 방해하는 작용도 한다. 때문에 전기적 작업과 심리적 해석을 병행할 때 보다 선명한 작품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결국 이상이라는 실존 인물의 생애의 파편을 여러 작품을 통하여 조합하고 복원하는 노력으로 귀결된다.

4. 마무리

[날개]의 창작 이면에는, 작품상 아내의 매음을 방관하거나 때론 조장하면서 기생하는 ‘나’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폭로 자체가 자기학대 이전에 아내(즉, 작품 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연심이 혹은 금홍이의 진실)에 대한 학대 내지 폭력이기도 하다. 또한 폭로의 발단은 ‘나’의 심리 내부에 도덕적 규율이 자리잡고 있어 그것과의 상충됨을 피로워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것 같다. 아내의 직업을 모른다는 ‘나’는 허구의 진행 과정에서, ‘내’가 방임한 타락의 이부자리를 하나씩 견어 올리는 실제작가가 이기도 하다. 그것은 아내의 금기에 대한 부자유스러움을 자의식의 고백을 통해 보편적 성모랄을 가진 독자에게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욕은 지적 무방비 상태인 ‘아내’에 대한 폭력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나의 원래 의지는 현상태의 안주나 만족을 유지시키는데 있다. 그것은 외출을 통해 밀폐된 공간에 대한 환기를 꾀하려 하지만 결국 금기를 위배한다. 그 금기 위배(보지말아야 할 것에 대한)에 대한 아내의 제재는 곧 ‘나’의 자의식을 발전시키는 구실을 한다. 『날개』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만남에서 비롯된 기형적 삶의 방식이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청산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逢別記』에서 처럼 ‘금홍이는 나를 나태한 생활에서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우정 간음’일 수도 있지 않는가. 금홍이, 즉 ‘나’의 아내 연심이의 직업상 그럴 수 있지 않는가, ‘나’는 생활력 없는 하나의 기동 서방일 뿐이다. 三三번지 一八가구는 연심이 류가 삶의 수단으로 삼는 직장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논의의 주 대상이 된 것은 여기에 기거하는 ‘나’라는 인물의 상황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왜?’라는 의문도 이상이라는 인물의 삶의 궤적을 통해 작품 외적으로 세밀하게 밝혀졌다. 그것은 이상이라는 재능있는 젊은이의 생애를 안타깝게 바라보게 한다. 그만큼, 문학적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지만, 이상이 남긴 작품이 무조건 우수한 까닭은 아니다. 이상 연구에 대한 전후의 열기는, 청년 문학을 본 청년 연구자의 기존의 우상

에 대한 반감에서 본격화되었다. 이런 점에서, 습작기도 완전히 거치지 않는 청년 작가에
건 이들의 기대치가 기대치가 너무 높지는 않았나 하는 반성에서 본 논의는 시작되었다.